

# 국제연합

## 존엄으로 가는 길 ;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하며 모든 삶을 변혁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길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종합 보고서

뉴욕

2014년 12월

## 목차

1. 2015년 이후 우리의 세상을 변혁할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요청
2. 종합
  - 2.1 과거 수십 년의 개발 경험에서 얻은 교훈
  - 2.2 Post-2015 과정에서 얻은 교훈
  - 2.3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포부
3. 새 의제 수립
  - 3.1 단계 설정
  - 3.2 변혁적 (transformational) 접근방법
  - 3.3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여섯 개 필수 요소
  - 3.4 여섯 개 필수 요소의 통합
4. 우리의 의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동원
  - 4.1 미래를 위한 자원
  - 4.2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기술, 과학 및 혁신
  - 4.3 지속가능발전 역량에 대한 투자
5. 우리의 의제를 달성하기 : 분담된 책임
  - 5.1 새로운 동력 (dynamics) 을 측정하기
  - 5.2 길을 밝혀주기: 새 개발의제에서 데이터의 역할
  - 5.3 이행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 5.4 지속가능한 미래에 적합한 UN 만들기
6. 결론: 보편적인 약속 안의 우리들



“우리는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추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

리우 +20 (UN 지속가능발전회의) 결과문서 중, <우리가 원하는 미래>

### 1. 2015년 이후 우리의 세상을 변혁할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요청

1. 2015년은 세계 정상들과 및 시민들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인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빈곤을 종식하고 이 세계를 인간의 필요와 경제적 전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해이다.

2.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은 우리의 약속을 달성할 수 있을지 혹은 실패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세계화된 경제와 복잡한 기술로 우리는 장기간 지속된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퇴치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 지구를 황폐하게 하며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이 비통함과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지속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망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3. 젊은 세대는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누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변혁을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권과 법의 지배가 보장되어 있으며 평화롭고 복원력 있는 세상으로, 포용적이고 분배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시작해야 하는 공통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4. 변혁은 우리의 신조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장서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또한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에서의 변화, 우리 경제들을 관리하는 방법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지구와의 관계에서의 변화이다.

5.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요청하는 바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며, 국제연합의 창설시에 만들어진 시대를 초월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6. 70년 전,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하며,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엄숙히 공약하였다.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한다’

7. 이 핵심 서약의 토대 위에, 발전권 선언은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모든 개발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와 개발로 인한 이익이 공평히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접근방법을 요청하였다.

8. 인류는 지난 7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폭력을 감소시키고 국제 기구들을 설립하여 합의된 보편적 원칙들과 수많은 국제법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백 만 명이 빈곤에서 해방되고, 수 백만 명이 권리를 부여 받았으며, 질병이 퇴치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식민주의가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었으며, 인종 차별이 극복되고, 민주적인 관행들이 뿌리 깊게 시행되었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모든 지역에 구축되었다.

9.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 이후, 인류의 안녕,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확립되었다. 이어 2000년도에 채택한 새천년 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인간을 중심에 두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전례 없이 개선시켰다. MDG의 뒤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동원은 다자간의 행위가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0. 하지만 오늘날 세계의 조건과 국제연합헌장의 비전의 간격은 여전히 멀다. 소수를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재화가 있지만, 우리는 만성적인 가난, 현저한 불평등, 실업, 질병과 박탈상태가 수 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 수준은 최고치에 달하고 있으며, 무력 분쟁 및 범죄, 테러, 박해, 부패, 범법자들에 대한 면책과 법의 지배가 훼손되는 상황은 현실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의 영향과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결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인류가 과학 및 기술 분야, 세계적 사회운동에서 발전해 온 것 만큼이나, 이러한 실패와 결점으로서 현대 시대를 정의 내릴 수 있다.

11. 우리의 세계화된 세상은 엄청난 발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수준의 결핍, 공포, 차별, 착취, 부정의와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우둔함으로서 특징지를

수 있다.

12.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자연 재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류의 행동과 배출물에 기인한다. 공공 기관, 기업,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13.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긴급한 리더십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14. 이 모든 것은 보편적인 도전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증거에 토대를 두고, 공통의 가치와 원칙에 근거하고, 공동운명에 대한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다자간 행동의 새로운 목표를 요구한다.

15. 국제연합헌장 하에서 성립된 국제적인 공약들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공감능력과 현명한 이기심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협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협은 국가 간 경계나 계급, 능력, 나이, 성, 지리적, 민족적, 종교적인 경계에도 한정되지 않는다.

16.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개인이 직면한 문제는 우리모두가 각각 직면하는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점차적이고 혹은 급작스럽게 우리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이러한 곤란한 문제들은 단지 부담이 되지만은 않는다. 이것은 새로운 파트너십과 동맹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인간 삶의 조건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협동할 수 있다.

17. MDG의 경험은 국제 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정부 및 시민 단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적 행위자들은 MDG하에 연합하여 빈곤과 질병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협력하였다. 그들은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분투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자원, 새로운 방법과 기술들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투명성이 증진되고, 다각적인 접근법이 강화되었으며 공공정책에서의 결과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이 구축되었다. 건전한 공공정책은 MDG에 영감을 받았고, 단체 행동과 국제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졌다. 1990년 이후 20년동안, 전 세계의 극빈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이를 통해 7억만명이 극빈에서 탈출하였다. 2000년과 2010년사이에는 약 330만명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위기를

피할 수 있었으며, 2,200만명의 결핵 환자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HIV 감염자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를 적용하여 660만명이 생존하였다. 이와 동시에, 초등교육에서의 성 비율 및 유아와 모성보건에의 접근,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8. 우리는 MDG의 끝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MDG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 평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바로 그 미래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산이다.

19. 2015년 이후의 국제적인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탐색과정에서, 국제 사회는 전례없는 절차에 착수하였다. 이전까지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렇듯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논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Rio+20 이후 이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Post-2015 절차를 위한 초석을 놓았으며, 모든 회원국가 및 전체 국제연합의 시스템, 전문가,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 세계 곳곳의 수 백만명의 참여로 진실로 중요한 여정을 거쳐왔다. 이것은 이 자체로 커다란 희망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성과 인류라는 하나의 종을 가로지를 목적에 대한 공통된 자각은 우리가 해답과 공익을 찾기 위한 혁신을 개발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20. 더 넓은 참여자로 논의의 확대가 시작되며, 이 절차의 정당성은 최종문서에 우리가 들어왔던 의견의 핵심메세지를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를 주요 척도로서 평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굴복하거나, 최소공통기준 정도만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새로운 위협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새로운 기회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열망에 대한 요구와 진정으로 참여적이고, 상호적이고, 변혁적인 행동의 길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21. 이 과정은 기후변화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이 강조하였듯이, 기후변화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 변화는 긍정적인 추세에 대한 역행과, 새로운 불확실성과, 지구 복원력에 사용되는 비용을 늘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2.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는 관성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3. 전 세계의 사람들은 국제연합이 진정하게 변혁적인 의제를 통해서 도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의제는 인간과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모든 국가들의 상황에 맞춘 보편적이고 적용가능한 의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민사회의 활동공간과 더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역량있는 기관들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요구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파트너십과 책임 있는 기업과 효과적인 지방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혁명, 엄격한 책무성 매커니즘과 새롭게 개정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 민중들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수단들에 근간한 새로운 의제의 신뢰성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

24. 앞으로 1년 동안 개최될 세 번의 국제 고위급 회담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첫 번째 회담은 아디스아바바에서 7월에 개최될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9월에 개최될 UN의 지속가능발전 특별정상회의 (Special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전 세계가 새로운 의제 및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용하고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인식 체계의 대전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회담은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로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회원국들이 새로운 개발 의제 실행을 방해할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 채택을 서약할 예정이다.

25. 세계를 위하여 삶을 변혁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이 역사적인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나는 전 세계 모든 정부와 개인에게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 존엄을 위한 나의 요청으로,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능력을 동원하여 이에 대답하여야 한다.

## 2. 종합

“인간사회의 가치는 각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에 달려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 2.1 과거 수십 년의 개발 경험에서 얻은 교훈

26. Post-2015 의제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는 새롭고 변혁적인 내용이 풍부하다. 하지만 이 논의의 근원에는 지난 20년간 개발 공동체의 경험과 1990년대의 국제 회의들과,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Rio Earth Summit), 2000년도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MDG, 2005년 세계정상회담, 2010년 MDG+10 회의, 마지막으로 2012년 Rio+20 회의에서 도출된 통찰력 있는 결과문서들이 있다.

27.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지속가능개발회의의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채택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 논의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 결의안은 지난 이 십 년 동안의 발전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기록하고,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과의 격차를 제시하였다.

28. 비록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이지만,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20년전만에도 거의 40퍼센트의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을 겪었으며, 빈곤퇴치라는 개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풍부하고 지속적인 성과에 따라, 우리는 극빈이 한 세대 이내에 근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MDG는 이러한 진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어떻게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변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29. 우리는 몇몇 최빈국(LDCs)에서 지난 이 십년 동안 놀라운 진전을 이룬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중소득 국가들은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으며 해당 국가의 시민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고, 두터운 중산층을 구축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큰 진전을 보였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실행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연결사회를 구축해온 국가도 있다. 임금은 상승하고 사회보장은 확대되었으며, 친환경 기술이 뿌리를 내리고,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분쟁에서 벗어나 재건, 평화, 발전을 꾸준히 성취한 국가도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경험들은 취약성과 배척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30. 인구 구성의 변화는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인구는 70억명에 달하며 2050년에는 90억명에 달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림에 따라 고령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인구가 도시에 거주함에 따라 도시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 해외 이민자는 2억 3천 2백만 명에 달하며, 국내 이주민까지 합하면 10억 명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할 것이다.

31.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더욱 지속가능한 접근법과, 효과적인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부문이 조세제도개혁 및 탈세 방지, 불공평 및 부패 척결 등으로 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미사용 자원이나 폐자원이 지속가능발전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선진 기업들이 앞다투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가능발전 방향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민간부문이 윤리 중심 투자의 잠재력을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적절한 장려대책 및 정책, 규정, 관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데이터 혁명의 도래로 그 어느 때 보다 더 명백하게 우리의 상황 및 발전 방향을 내다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확실히 포함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전 세계의 창의적 도전의 결과물로 재생이 가능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SCP) 패턴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거버넌스는 21세기의 현실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개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가 최초로 진정하게 국제화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활발히 움직이는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고 참여적이고 공동 협력적이며 변화와 변혁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32. 우리는 이미 변혁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수정하는 방안에 착수하였다.

33. Post-2015 의제에 대한 논의는 각 국가의 세부적인 조건에 대한 중요성과 MDG프레임워크에 대한 관점의 진전이 강조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빈국, 내륙 개발도상국, 군서도서국가와 같은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소득국가들과 취약성 및 분쟁상황에 놓인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4. 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은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회원국들은 인류의 생계를 포함하는 생태계와 그들의 경제, 사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안녕, 그리고 수 많은 문화적 전통 속에서 ‘어머니 지구’라고 알려져 있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5. 또한 회원국은 더 나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내총생산(GDP)과 같이 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 세계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든 문화와 문명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인류를 지구의 취약한 생태계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요청하였다.

## 2.2 Post-2015 과정에서 얻은 교훈

36. 국제 사회는 새로운 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긴 여정을 거쳐왔다. 나는 2013년 7월, UN 총회의 요청에 따라,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 A Life of Dignity for All> 보고서를 회원국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인권에 기반을 둔 의제의 발전을 요청하였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적 책무성을 밝혔으며, 평화, 발전, 그리고 인권의 상호 관계로서의 의제 “누구도 제외 시키지 않는 것”(leaves no one behind)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나는 확실한 평가와 모니터링, 더욱 양적으로 질적으로 잘 분류된 데이터, 측정가능하고 적용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해서도 요청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혁신적인 행동들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37. 여러 의견들이 이 논의에 전달되었으며, 또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소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a) 전 세계 민중들은 전례 없던 협의과정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UNDG(유엔 개발그룹)이 주도한 국제적인 논의과정 <수백만의 목소리: 우리가 원하는 세계, Post-2015 의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기회> 및 <‘나의 세계’에 관한 조사(My World Survey)>를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하였다. 청년들이 주축이 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국가적, 분야별, 온라인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과정을 통해 참여하였으며, 이것은 전 세계 청년들의 요청(Global Youth Call)과 제 65차 UN DPI/NGO (공보국 /비정부기구)연례 컨퍼런스의 결과에

반영되었다. 의회,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 (여기까지 전지은)

---

(b) 유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고위급 패널(HLP)은 다음과 같이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다섯 가지 변혁적 전환’을 공표하였다. 1) 극빈 종식, 2)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에 둘 것, 3)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 4) 평화로운 사회건설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을 지닌 거버넌스 구축,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c) 학계 및 과학자들은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를 결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상호의존적 네 차원(경제,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을 통합할 수 있는 과학에 기반하고 행동 지향적인 의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d) Post-2015 의제에서의 민간기업부문의 주요 역할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다. 기업은 시장을 내부에서부터 전환하고 생산 및 소비, 부의 분배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사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기여 할 준비가 되어있다.

(e)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ssion)**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목표 및 정책 우선순위를 국내의 특수한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f) UN 시스템의 경험 및 전문 지식은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시스템 작업반 (UN System Task Team)**의 보고서와 기술지원팀(Technical Support Team, TST)의 업무에 담겨있다.

(g) UN 고위급조정위원회(**UN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는 주요한 리더십과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h)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Global Substantiality)**은 인간의 복지 및 전지구적 정의를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강화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향을 권고하였다.

38. 회원국은 2014년에 기존의 UN 개발 기구들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통합하였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기능별, 지역별 위원회, 전문가들은 Post-2015의 검토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잠재적 요소를 규명하였으며, UN 개발 시스템의 응용 방법 및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활동을 분석하였다. **개발협력포럼(DCF)**은 정책 공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이해관계자가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의제의 의미와 글로벌 파트너십, 더욱 효과적인 검토와 모니터링 방법,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남반구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구체적 행동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은 2013년 출범 직후부터 일관된 접근법과 검토와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럼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Post-2015 의제에 집중해왔다.

39. 2014년 말 현재, 우리는 Rio+20 회의에서 수립된 정부간 절차의 완결에 긍정적으로 주목한다.

40. 유엔 총회에서 기술에 대한 일련의 구조화된 대화에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적합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보급을 증진시키기 위한 매커니즘의 적용 방법이 논의되었다.

41. **지속가능발전 재원정부간 전문가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는 2014년 8월에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발 재원 조달 전략의 선택 가능한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위원회는 원조 및 무역, 부채, 조세,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정책 입안자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호적인 국가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국제적 환경 개혁으로 보완된 개인적 및 국가 소유의 재정 전략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적, 사적, 국가적, 국제적 재원을 포함한 모든 재원이 활용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42. 유엔 총회 의장은 2014년에 여러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1) 여성 및 청년, 시민 사회의 기여, (2) 인권과 법치, (3) 남북·남남·삼각 협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기여에 대한 세 가지 **고위급 행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역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물과 위생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세 가지 주제별 토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유엔 총회에서의 책무성에 관한 대화와 UN 지역 위원회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지역별 대화로 이어졌다. 2014년 9월, 의장은 **Post-2015 개발 의제에 관한 고위급 점검 회의 (High-Level Stocktaking Event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를 개최하였다.

43. 2014년 7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은 역사적 논의 끝에 Rio +20 회의 결과문서에 기초한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빈곤 퇴치,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용적 성장, 평등,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의제를 강조한 결과를 공표하였다.

44. 일 년 이상 지속된 포용적이고 집약적인 협의 결과, 공개작업반은 17개의 목표와 관련 세부목표 169개를 제의하였다. 이 목표는 다양한 국가적 현실과 개발 역량 및 수준을 고려하여 “행동 지향적이며,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수립되었으며, 야심찬 전 세계적 세부목표와 국가별로 수립되는 국가별 세부목표의 결합을 추구하였다.

4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MDGs의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불평등 및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도시 및 인간 정주, 산업화,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평화, 정의 및 제도에 관한 목표와 함께 새로운 의제를 구축하였다. 의제의 환경적 차원이 모든 목표 전반에 걸쳐 다루어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이행수단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목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46. 본 목표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그 외 국가적 맥락과 연관된 특성 등의 정보 분산을 포함한 정보의 가용성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47.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 독립전문가 자문단(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 “A World That Counts”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 및 풍요로운 정보를 누리는 사람과 정보가 결핍된 사람과의 격차, 공공 및 민간부문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본 보고서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증가 및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 문해력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시민의 공간 증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계적 역량 및 신기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 2.3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포부

48.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기여 및 주요 이정표를 종합하여 **보편적인 의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도출되었다. 인류는 같은 세계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현대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도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보편성은 모든 국가가 각자의 고유한 접근법을 통해, 세계적인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인권과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속성이다. 보편성은 우리 모두가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공동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정책 일관성을 요구한다. 보편성은 UN 헌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현한다.

49. 모든 주체가 **사람 중심의, 환경을 고려한 의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 환경적 책임, 건전한 경제,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기후변화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 수립은 상호 강화의 성격을 갖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변혁적이고 보편적인 Post-2015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과학과 증거에 기반하고 인권 및 법치, 평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50. 모두는 MDGs의 지속적인 이행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회원국이 빈곤의 다양한 양상,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및 노동권 등 이 목표가 남긴 **지속가능발전의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인프라 시설, 산업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의 강화, 표현 및 정보, 결사의 자유, 공정한 사법제도, 평화로운 사회와 신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51. 모든 주체는 모든 수준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형평, 포용을 보장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지원이 절실한 개인 및 단체, 국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성의 시대인 21세기에서 인류의 절반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빈곤층,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실업자, 농촌 인구, 빈민가 거주자, 장애인, 원주민, 이주민, 난민, 실향민, 취약계층과 소수 민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피해자 및 최빈국(LDCs) 국민, 내륙국, 군소도서개도국, 중소득국, 분쟁 국가나 점령 지역, 의료 및 인도적 차원의 복합적 긴급 상황에 처한 지역, 테러 피해 지역의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성 불평등 및 차별, 여성과 아동 및 소년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종식되어야 한다.

52. 공공 담론을 통하여 국가와 기관, 개인 사이의 신뢰도 결핍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 and 사회의 통합, 법치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재수립하여 평화의 결실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모든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촉진시키고,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한 형평성을 바탕으로, 또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개별적 역량에 준거하여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다 및 해양 자원, 육지 생태계와 삼림을 보존하고자 한다.

54. 모든 참여주체는 우리의 경제에 의미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패턴이 요구되고 있다. 사람들은 양질의 일자리, 사회 보호, 견고한 농경 방식과 농촌 발전, 지속 가능한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회복력 있는 인프라 시설,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기후변화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무역을 개혁하고 시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보장하며,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불법 금융 흐름을 방지하고, 자금 세탁 및 탈세를 적결하며 도난 및 은닉 자산을 회수할 것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받았다.

55. 새로운 의제의 전반에 걸쳐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매커니즘의 개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에 상응하는 규범 기반의 정책 일관성이 모든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연대와 협력, 상호 책무성, 정부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56.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결과에 대해 책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에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참여적인 검토 및 모니터링 제도가 요청되었다. 또한 정보 및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혁명을 요구하는 한편,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이행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참여적 매커니즘을 요구하였다.

### 3. 새 의제 수립

“빈곤 극복은 자선활동이 아닌 정의의 실현입니다. 빈곤은 노예제나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한 인간에 의해 근절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때로 이러한 과제는 위대한 세대에 부과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세대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이 꽃필 수 있기 바랍니다.” - 넬슨 만델라

#### 3.1 단계 설정

57. 현재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2010년 MDGs 정상회의부터 Rio+20 회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공개작업반 (OWG-SDGs)의 보고서로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는 비전이 등장하고 있다.

58. 인간의 존엄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문구로 격하되어서는 안 되고,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지속가능발전은 복잡한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개작업반이 세운 원대한 목표와 세부목표는 계속 늘어만 가는 복잡한 세계적 안전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 사회의 진보적 시도로 환영 받고 있다.

59. UN 사무총장으로서 나는 공개작업반의 성과 (표 1)를 환영한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취를 이룬 리더와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전한다. 공개작업반의 제안을 Post-2015 정부간 협상 과정의 주요 근거로 삼기로 한 유엔 총회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주목한다.

60. UN 회원국은 향후 몇 개월에 걸쳐 Post-2015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범위를 논의할 것이다. 이 의제는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 및 2005년과 2010년 MDGs 정상 회의, 2012년 Rio +20 회의 결과를 비롯한 주요 국제 회의의 결과에 기초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내러티브와 Post-2015 절차에 전달된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현 정치적 공약과 국제법 상의 기존의 의무에 완전히 부합하여야 하며, 측정과 달성이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반해야 한다. 이는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중요한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취약성과 역량 수준의 차이로 인한 국가의 역량강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들은 국가적 책임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의제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 의제는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3차 개발재원회의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UNFCCC COP 21)에서 합의될 내용을 포함하여 재정 및 기타

이행 수단에 대한 진지한 공약을 필요로 할 것이며, 여기에는 보고 및 모니터링 과정, 학습, 상호책임의 보장을 목표로 한 전 계층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매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 지속가능발전 목표 목록**

1. 모든 국가에서 빈곤 근절
2. 기아 근절과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3.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삶 보장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5. 모든 지역에서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6.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사용량의 식수와 위생 보장
7.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 구축 및 혁신 장려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 보장
13. 기후변화와 파급효과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기후변화의 세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국제적, 정부 간의 포럼은 UN 기후변화협약임을 밝힌다.

자료: 유엔 총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 보고서 (A/68/970)

61. 본 목표의 성공여부는 새로운 의제가 얼마나 핵심 행동주체 및 새로운 파트너십, 주요 지지기반, 광범위한 세계시민을 고무시키고 동원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요구사항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 이해와 수용이 용이한 의제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MDGs가 더 폭넓고 변혁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환이 효과적으로 국가적·지역적 비전 및 계획의 통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의제와 목표를 받아들여야 한다.

62. 이러한 점에서 Rio+20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유엔 총회에 부여한 임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은 “MDGs는 행동 중심적이고 간결하며, 소통이 용이하고, 수가 많지 않고, 야심차고, 지구적인 성격을 띠고, 각국의 현실과 능력, 개발 수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도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결의안 66/288, 247 문단)

63. 회원국들은 공개작업반이 수립한 의제가 Post-2015 정부간 협상 절차를 위한 주요 기초라는 사실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의 포부를 반영하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특히 글로벌 차원의 인지제고와 국가적 수준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목표 17개를 유지하면서 이를 집약적이고 간결하게 재배열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 3.2 변혁적 (transformational) 접근법

64. 나는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하여 2015년 9월로 예정된 지속가능발전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들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Rio+20 회의에서 위임된 간결하고 야심+찬 의제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65. 6개의 핵심 요소는 공동으로 적용되어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요청의 긴급성을 반영하고 있다. 새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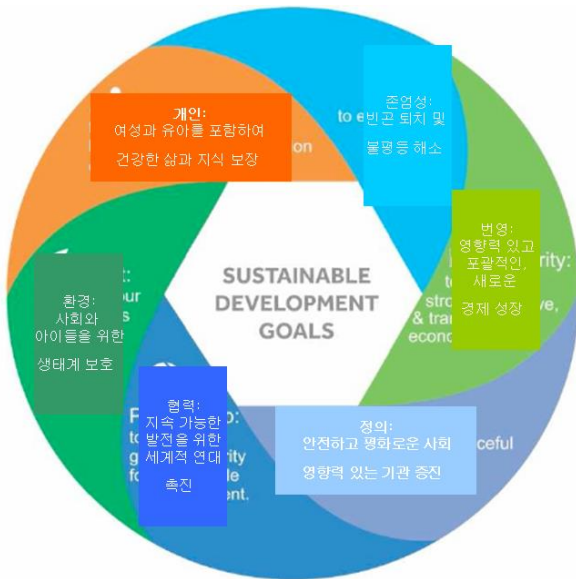
- 모든 국가 및 집단에 해당되는 해결책을 수반하는 보편적 접근법에 대한 의지
- 경제 및 환경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모든 활동에서의 지속가능성의 통합
- 모든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 고려, 모든 사회적·경제적 집단에 부합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목표나 세부목표도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합의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진전시키는 행동
- 기후변화의 주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결 노력

- 신뢰할 만한 데이터 및 증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데이터 수용량, 가용성, 분산, 해독 능력, 공유의 강화
- 여러 이해관계자 및 현안 중심의 연합 등을 포함하여 효과와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한 이행수단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 국제적 연대에 대한 새로운 공약에 각국의 역량에 새로운 약속을 자리매김

### 3.3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요소

66. 다음의 여섯 가지 핵심 요소는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보편적, 통합적, 변혁적인 특성을 강화하고, 공개작업반의 보고서에서 회원국이 표출한 열망이 해석되고 소통되고 국가적 수준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 지속가능발전 수행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요소



[동그라미 표 안의 내용 수정]

협력 -> 파트너십

개인 -> 사람

유아-> 아동

아이-> 아동

존엄성 -> 빈곤 종식과 불평등 퇴치

변영 -> 강하고 포용력있고 변혁적인 경제

영향력있는 기관 -> 강하고 효과적인 기관

여성과 아동 포용, 건강한 삶과 지식

## 존엄성: 빈곤 종식 및 불평등 퇴치

67. 2030년도까지의 빈곤퇴치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거대한 과학적 희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괴로운 박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존엄성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와 빈곤이 지속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68. 우리가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성 불평등 및 여성의 인권 실현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사회 전체, 특히 청년이 개발에 참여하지도, 기여하지도, 혜택을 입지도 못할 경우 어떠한 사회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른 불평등의 측면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소득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수반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사안 중 가장 뚜렷한 문제이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의제는 여성이나 청년, 소수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미리 원주민에 자유로운 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받고, 장애인이나 연장자, 청소년, 청년 등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고, 빈곤층을 자력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민, 난민, 실향민과 분쟁상황 및 점령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 사람: 건강한 삶, 지식 및 여성과 아동의 포용 보장

69.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MDGs의 미달성 과제에 있어 소외되어 있다. 우리는 여성 및 청년, 아이들이 전 범주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착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금융 서비스나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모든 유아 및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인간 개발은 곧 인권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70. 본 의제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가격적정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예방 가능한 산모와 신생아, 유아 사망과 영양실조를 종식, 필수 약품의

접근성을 증진, 여성의 생식 및 재생산에 관한 권리 실현, 면역조치 보장, 말라리아 퇴치 및 에이즈와 결핵이 없는 미래 비전 실현, 정신 질환이나 신경계 부상, 교통사고 등의 비전염성 질병 감소, 물이나 위생관리와 관련된 건강 습관 장려.

71. 오늘날 18억 명의 청년 및 청소년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역동적이고, 많은 정보를 지닌,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변화의 동력을 상징한다. 새로운 의제 안에 이들의 요구와 권리, 선택,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청년 세대가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 이후까지 생활 기술이나 직업 훈련, 과학, 스포츠, 문화 학습 등의 관련 기술과 높은 수준의 교육,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기술의 도움으로 안전한 세계의 직장에 부응하여 교육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문도운)

---

번영: 강하고, 포용적이고 변혁적 경제 성장

72. 경제적 성장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영향력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실질적 소득 상승, GDP의 개념을 넘어 인류의 복지 및 지속가능성, 평등을 위한 포괄적 성장이 필요하다. 여성이나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이주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좋은 직장 및 사회적 보호,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경제적 성공을 구현하여야 한다.

73.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기반 시설, 정주, 산업화,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의 혁신 및 투자는 고용을 창출시키고 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적절히 규제되고, 실행 가능하며, 책임감과 수익성이 있는 민간부문은 공적 사업의 수익, 고용 및 생계 임금 그리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유가치창출(CSV)을 위한 변혁적 사업 모형은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74. 풍부한 천연자원은 또한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GDP 성장과 더불어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지속가능한 조경관리 (농업 및 삼림 포함) 및 산업화 (제조 및 생산력 포함), 에너지 및 수자원, 위생 관리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일자리 창출, 지속적이고 공평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지구환경: 모든 사회와 우리 세대의 아동을 위한 생태계 보호

75. 지구생태 한계선 (planetary boundaries)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사막화 방지, 지속 불가능한 토지 이용의 해결이 필요하다. 야생동물 및 삼림, 산을 보호하고 재난 위험을 줄이며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바다나 강, 대기를 세계적 유산의 개념으로서 보호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식량 체계를 촉진시키고 수자원 및 폐기물, 화학 물질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며, 재생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구축, 환경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경제적 성장을 도모,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회복력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보장하고, 해양 및 육지 생태계와 토지 이용 역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6. 기상 시스템이 내보내는 명백한 경고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기후변화의 최악의 결과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여야 한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주 원인은 이산화탄소이며, 화석연료의 사용과 삼림 벌채가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높이는 요소이다. 지구온난화는 극심하고 광범위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더 늦게 시작할수록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지고, 기술적 한계만 더 증폭될 것이다. 환경조건에 적응하면 위험요소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2015년 말까지 중요하고 보편적인 기후변화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정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강하고 효과적인 기관

77.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각국 및 전 계층의 공공기관이 포괄적이고 참여 지향적이며,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률과 기관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은 공포와 폭력, 차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는 참여적 민주주의와 자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78. 공정한 사법제도 및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책임 있는 기관을 구축하는 것, 부패 척결, 불법 금융 흐름 방지, 개인 보안 보호 등은 지속가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다. 시민 사회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성이나 소수집단, 성소수자 (LGBT) 단체, 원주민, 청년, 청소년, 고령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및 정보 접근성,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조혼 및 강제 결혼은 모든 곳에서 철폐

되어야 하며, 법률은 국가적 · 국제적 차원으로 강화되어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79. 위기와 분쟁 이후 사회를 더 잘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가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국내강제이주민(IDP)을 지원, 개인 및 단체의 회복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화해 및 평화 구축, 국가형성은 국가가 취약점을 극복하고 유기적인 사회와 영향력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투자로 개발 혜택을 유지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 촉진

80. 새천년 선언문과 몬테레이, 요하네스버그 (리우+10)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즉, 원대한 의제를 실행하는데에는 정치적 의지와 원조나 무역을 통 국내적, 국제적, 공적, 사적인 , 규정, 조세, 투자 등의 전면적 행동이 필요하다.

81. 의제 실행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통합해 주는 개념이다.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포용적 파트너십은 실행의 주요 특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파트너십이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공공 정책과 민간 활동을 연계하는 발판을 제공하고 변혁적인 파트너십은 개인 및 환경을 중심으로 원칙 및 가치, 공동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구축되며, 여기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포함된다. 이는 상호 책무성을 중심으로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감 있는 공공-민간-주민 (Public-Private-People)간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3.4 여섯개 필수 요소를 통합하기

82.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나 환경, 사회적 해결 방안을 위한 통합적인 의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모든 범위를 통합할 때 장점이 크게 발휘된다. 이러한 통합은 사람과 환경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모델의 기준과, 의제를 지원해주는 환경적 해결방안, 경제적 활력을 주고 환경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접근법, 마지막으로 인권 및 평등함,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조화를 이루고 통합된 전체적 목표로서 이를 대응하는 것이 변혁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83. 본 의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발전권의 요소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국제적 인권 체계를 반영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특정한 세부목표가 설정되

었으며, 성과 지표는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에 걸쳐 넓게 분류된 필요가 있다.

84. 이 여섯 가지 요소는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통합될 것이다. 이를 전 국가 및 개인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국가적 요구 및 역량을 반영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상호의존도를 고려하였다.

85. 마지막으로 새로운 체계는 더 광범위한 UN 의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상호의존적인 평화 및 안보, 개발, 인권의 목표와 통합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86. 이 모든 과정에 체계는 모든 파트너가 리더십, 정책 일관성, 전략, 협력에 대한 접근에서 변혁을 동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에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한편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엔의 업무를 통합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 4. 의제를 이행하는 수단 동원

“지구는 인간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해주지만 인간의 탐욕까지 충족해줄 수는 없다.” 마하트마 간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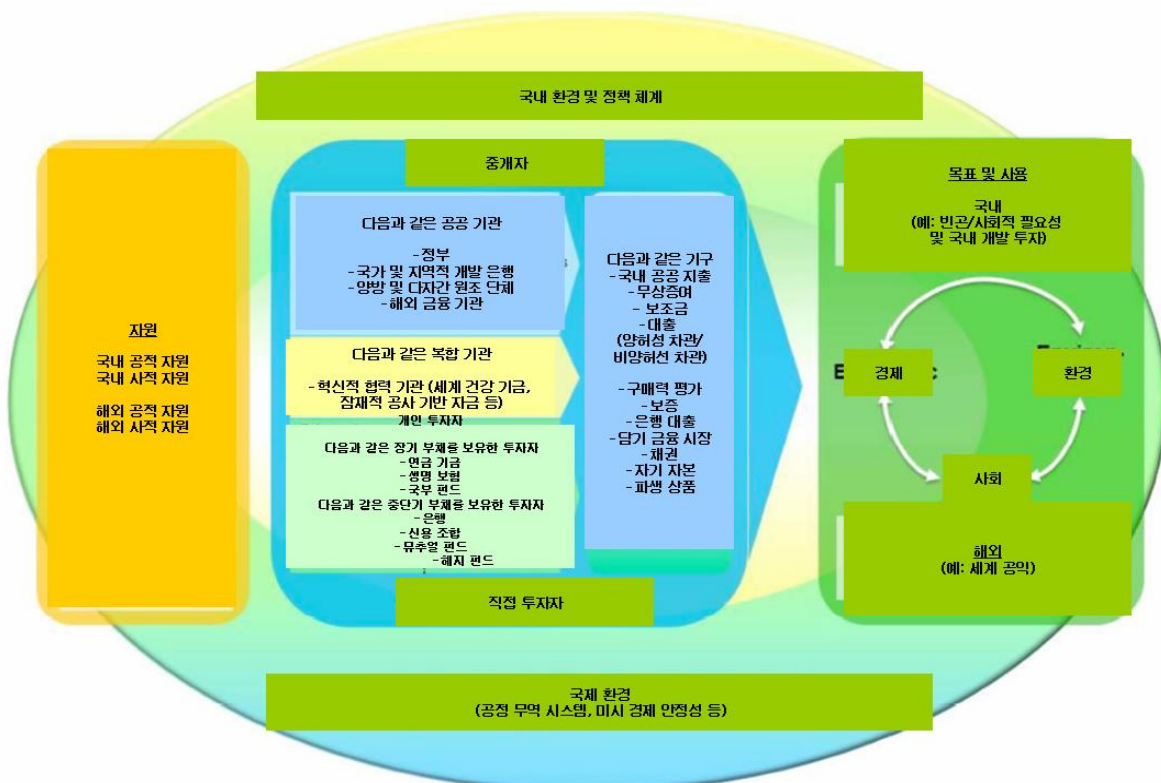
##### 4.1 미래를 위한 자원

87. 지속가능발전은 복합적인 사안으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요건들이 존재한다. 목표를 위한 자원조달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나 단일 부류의 문제로 총당할 수 없다. 모든 자원 흐름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최적화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최대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통합된 개발 의제에는 공평하게 시너지를 내는 자원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몬테레이 개발자원 및 리오 환경회의의 개발 논의의 두 가지 주요 흐름에서 만들어진 개발자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기후 자원 마련을 위한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사진 1)

88.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자원조달 문제로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개작업반(OWG)은 이에 관한 실행 수단으로서 여러 세부목표를 제안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자원조달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위원회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는 국내 공적, 국내 사적, 국제 공적, 국제 사적, 혼합형 자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시는 재정 문제의 공적, 사적, 국내, 국제적 측면을 이용하여 새롭고 추가적인 자원을 형성하며, 기존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BRICS 은행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같은 남남협력의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지속가능발전 투자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89. 나는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하며, 새 의제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구체화시키고 국가들의 포부를 넓히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아디스 아바바 개발재원 회의에서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한 야심찬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사진 1: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국제 및 국내 재원 흐름도



수정

자원 -> 재원

양방 및 다자간원조 단체 - 양자 및 다자간 개발원조 기관

해외금융기구 -> 국제금융기구(IFIs)

비양허선 -> 비양허성

사회적 필요성 -> 사회적 욕구

세계공익 -> 글로벌 공공재

\* 박스의 크기는 자금의 양이나 중요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국제 공공 재원이 해외 목표 실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국부 펀드는 공적 자금이나 사적 투자자들에 의해 관리된다.

자료: 지속가능발전 재원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A/68-315)

90. 모든 공적 자금은 모두 사회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개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공적개발원조 (ODA) 및 기타 해외 공적 자금은 전략적 접근법과 체계적 활용 절차를 활용하여 취약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UN 회원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ODA는 MDG의 미해결 사안을 처리하여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의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ODA에 대한 재분류 논의에서 다른 재원을 동원(leverages)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화된 ODA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빈국(LDCs), 내륙개발국(LLDS), 군소도서개발국(SIDS)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국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91. 사회적 보호 최저선 (social protection floor) 및 사회적 배제를 구제하는 핵심적 경제 사회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국내 공적 재정 수입을 증대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별 국가의 정부에 있다. 공공 기관이 공익을 위해 힘쓰는 동안, 법과 정책은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하고 시기적절하게 할당한다. 환경적 · 사회적으로 건전한 정책, 인권 향상, 영향력 있는 기관 및 법치 등이 이러한 목적에 해당되며, 이러한 국내적인 노력도 국제적 환경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어야 한다.

92.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을 위해서는 수조 달러의 민간 자원이 지닌 변혁적 힘을 동원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활용하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은 핵심 부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FDI) 등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기반 시설, 운송, 정보 및 통신 기술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관찰 및 검토 체계와 규정 및 보상 구조를 개편하여 투자 유치 및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의 감시 기능과 같은 국가적 감시 메커니즘이 강화되어

야 한다.

93. 국가 주인의식, 성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책무성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4. 사업 단계의 동일한 투자로 경제 분야의 장기간의 탈탄소와 에너지 및 수자원, 농업, 산업, 기반시설, 운송 접근법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 대다수의 투자는 국가내 지방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95. 오랫동안 국제체계를 저해하고 개발도상국에 불이익을 초래한 불공평성을 신속하고 중대하게 근절하여야 한다. 더 공평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과 도하 개발의제 (DDA)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며, 기술 및 의료, 개발도상국 대상의 장기간 투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신흥 및 개발도상국은 국제 금융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방안, 국제 금융 및 통화 제도의 효과적인 규제 및 안정성, 지속가능한 부채 대책 문제를 더 공정한 방식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역 및 금융, 투자 등의 국제 체제의 현 방식과 규범 및 노동 기준, 환경, 인권, 공평성, 지속가능성 사이의 정책 모순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96. 현재 제 3차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준비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제21차 회의 (COP 21)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97. 이에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합의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98. 선진국은 UN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 일정을 통해 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 지원비율을 0.7%를 달성하고, 2015년까지 최빈국(LDCs)에 GNI 대비 ODA 지원비율을 0.15%로 확대하기로 한 이스탄불 공약을 실행하여야 한다. 최빈국 대상의 ODA 지원비율을 축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더 세분화하고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실행하여야 하며, 이로서 추가 자원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빈국에서 벗어나 국가적 전환을 맞이한 국가에는 개발 계획 및 정책,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발전 방향에 순조롭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급을 증진하여 세계 개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국내 자원 동원을 향상시키며, 그 외 국제적 공약도 모두 실행에 옮겨야 한다.

99. ODA와 개발금융 조치를 현대화하는 노력은 공여국, 수원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포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0. 양허성 기준 (levels of concessionality)은 다양한 개발의 단계와 빈곤 상황 및 다차원적 측면, 특정 투자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01. 모든 국가는 관련 정부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재원 흐름

전체를 고려하는 국가별 지속가능개발 금융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 국내 정책과 법률 및 제도 환경, 정책 일관성을 재고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후재원 등의 모든 금융 흐름은 국가 소유권을 강력히 구축하고 국가 정책 및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지속가능 개발금융을 위해서는 전략을 투자 가능한 시설과 결부지어야 하며, 국가비전 및 계획, 연간 예산, 중기 지출 체계는 국가적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부합하여야 한다.

102. 국가 재정 및 거시경제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저탄소 해결방안과 적응 및 회복력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결정된 탄소가격은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다. 직/간접적인 유해성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및 농업 수출 보조금 철폐도 필요하다.

103. 규제체계 및 장려책, 위험수익 프로파일 (risk-return profile)은 민간 투자 및 사업 모형, 공공 조달 정책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104.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민간 투자의 책임감 있는 투자 촉진 정책을 채택하고, 투자자 장려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규제적 변화와 함께, 기업이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및 거버넌스 (Economic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보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전환기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105. 투자 정책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 UN 환경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투자 선호도와 관련 국가 내 국민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106. 기업가 정신을 권장 · 지원하고 개발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재정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07. 국가는 수입 및 연령, 위치, 성별, 그 외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금융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의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물은 철폐되어야 하며, 금융 이해력을 증진, 엄격한 소비자보호원을 구축하여야 한다.

108. 혼합형 금융 플랫폼의 뛰어난 잠재력은 공공기관의 이익 창출 분야에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입증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적 책임을 대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환경적, 노동, 인권, 성평등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대중에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나 동

시에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하여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다른 사업의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109. 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 (IFIs)에 다각적·지역 개발금융기관의 역할 및 범위, 기능을 점검하는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110. 기후재원 목적의 추가적 을 이행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뿌리에 일관적이고 강화된 결합을 이루는 대신 기후재원 및 기타 금융 흐름의 파편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전문가 단체는 기후재원 및 ODA을 포함하는 일관적인 체계를 개발하여 회원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1. 남남협력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노력이 권장된다. 더 많은 국가가 국제 공공 재정에 관한 기여를 서약하고 목표 및 일정을 준비하여 실행에 옮겨야 하며, 남남 기술 원조 및 지역적 원조를 통한 경험 공유를 증진하여야 한다.

112. 국가는 혁신적으로 각종 세금 (예: 금융거래세(FTT), 탄소세, 항공권세) 및 비과세 (예: 이산화탄소 배출권)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 재원 충당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113. 주요 경제 및 세계적 유동성 관리상의 국제적 거시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원조 및 경기대응적 거시경제관리 (countercyclical macroeconomic management)를 위하여 특별인출권 (SDR)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14. 현존하는 세계적 금융 위기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 종합적이고 적절한 금융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제는 지속가능발전 투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및 혜택을 고려하여 고안되어야 한다.

115. 불법적 금융 흐름의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도난 재산 반환의 방해요인을 척결하며 UN 반부패협약 (UNCAC)을 더 엄격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UN의 지원 하에 정보 공유 및 사법공조, 정부간 조세협력 위원회를 설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6. 투명하고 질서있고 참여적인 국가 부채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즉각적 조치로서 관련 당국 및 이해관계자가 비공식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 부채 관련 논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117. 이주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송금 수수료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G20 회원국의 해외송금 수수료를 5%로 감소시키는 약속을 환영한다. (여기까지 이하닉)

---

#### 4.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과학, 혁신

118. 우리는 전례 없는 기술 혁신과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 기술이 만드는 해결책과 기술이 할 수 있는 접근 수준은 2015년 이후 세계 비전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19. 하지만 오늘날 필수적 · 환경적인 기술 접근이 국가 간, 국가 내에 불균형적으로 확산되어, 빈곤층과 개발도상국에서 기술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된 실정이다. 방대한 양의 공공 자원이 군 예산으로 할당되어 공익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에는 비교적 적은 예산이 투입 되었다. 민간 부문 연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불리한 라이선싱 및 특허로 일반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혁신에 대한 보조금이 제공되기도 한다. 게다가 21세기 과학 및 기술 (정보통신기술 포함) , 엔지니어링 , 수학 분야에서 여성이 필수적인 참여수준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 불가능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무해하고 건전한 기술의 혁신 및 발전에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공정한 가격이 매겨지고 널리 퍼지고 공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21.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은 궁극적으로 국내 혁신 및 자국 기술 해결방안 개발을 늘리기 위하여 기술 접근성 향상으로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122. 역사적으로 주요 기술발전은 여러 이해관계자 및 해결방안 중심의 사업에서 기인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해결책 중심 기술 파트너십 또한 필요할 것이다.

123.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과 공공부분, 민간부분, 시민사회, 자선재단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토착지식을 위한 연구, 개발, 입증, 보급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iffusion: RDD&D)의 비용을 나누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영향력 있는 기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준비하도록 움직이고, 새 의제의 개시하고 구체적인 기술 목표와 자원 동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제도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기술 혁신에 적합한 보상이 발생하도록 조치하면서 빈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기술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긴급한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124.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가 개발, 전파, 적정기술 특히, 환경적으로 훌륭한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야심(ambition)은 도전과제 근처에 결합되지 못했다.

125. UN총회의 체계적인 논의에서 나온 추천을 고려하여, 나는 기존 프로젝트를 보완하고 모든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유는 (a) 농업과 도시, 건강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포함하여 기존의 기술촉진 이니셔티브, 기술수요와 차이를 제시하고, (b) UN 시스템 내에서 분열을 다루고 시너지를 촉진시키며 국제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고, (c) 청정기술 이니셔티브 확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지식 이전, 기술 원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

126. 이와 동시에 나는 모든 회원국이 (a) 기술 은행 (Technology Bank) 및 최빈국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역량강화 메카니즘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apacity Building Mechanism) 설립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b) 기술 공유 및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혁신역량(innovation capacities)을 위한 지식 및 역량강화 협력을 상당량 확대하며 (c) 이러한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적 · 국제적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필수적인 조정을 하고, (d) 이러한 기술 및 지식을 호의적, 양허적, 우선적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개발, 이전, 전파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e) 글로벌지적재산권제도와 이것의 다자간 규범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유연한 적용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완전히 부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f) 공공자원을 유해한 기술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도록 이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g) 환경 친화적 기술의 혁신- 시장- 공공으로의 순환을 증진시키기를 부탁한다.

#### 4.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에 투자

127.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의 계획 및 정책, 예산, 법률, 기관에 맞게 목표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합 기관과 능력 및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략 및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8. 이러한 전략은 지방정부의 공동참여와 함께 지역 수준에서 검토 및 이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례 에서, 시장(mayors)을 포함한 지역 및 지방정부 단계에서는 이미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제도적 역량과 인적 역량은 많은 경우에서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성을 평가하고 부문 및 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가 포함된다.

129. 행정부 및 국회, 사법부는 이러한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중점적,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30. 개발도상국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빈국 및 분쟁 이후 국가는 이러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UN은 역량 개발에서 UN의 역할을 재활성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UN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파트너에 의해서 야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

131. 우리는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은 또 하나의 강력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이행수단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지지층을 확대하고 동원하며 국가의 계획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을 위하여 정부와 시민(people)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의제를 현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132.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혁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문화의 힘 또한 반드시 동원하여야 한다. 세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점점 나아지는 이해를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의 놀라운 모자이크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우리는 아직 문화에서 배울 것이 많다. 이 것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의제는 기관이나 정부의 독점적 영역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문화는 사람들에 의해 수용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의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원동력(important force)이 될 것이다.

## 5. 의제 만들기(delivering): 책임 공유

“발전을 위해서는 빈곤 뿐 아니라 독재정치, 취약한 경제적 기회, 구조화된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 국가의 불관용이나 과도한 활동 등 부자유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마티아 센

### 5.1 새로운 동력 (dynamics) 측정

133.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은 증가하는 인구 및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또, 사회적 프로그램의 일자리, 임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발한 경제 및 포용적 성장에 따라 그(진전) 정도가 달려있다. 하지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반드시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정밀해야 한다.

134. 우리는 국가 회계에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환경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유해한 활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와 공평을 설명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 사회적 재화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찾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35. 회원국은 국내총생산의 개념을 초월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진행 평가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이니셔티브 세우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그러므로 UN 및 국제금융기구(IFIs), 과학자 단체, 공공기관은 국내총생산(GDP)의 개념을 넘어 대안적 측정 혹은 진척 방법을 개발시키는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사회적 진보 및 인간 웰빙, 정의, 안보, 평등, 지속가능성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빈곤 측정은 빈곤의 다차원적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관적인 웰빙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은 잠재적으로 정책입안에 새로운 주요 도구가 될 것이다.

136.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측정 가능한 세부목표(target)와 기술적으로 엄격한 지표 또한 필요하다. 회원국은 여러 세부목표를 제안하며 이 과정을 상당히 발전시켜왔다. 그 세부목표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본질을 정의 내리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목표에 높은 확신과 반응을 보인 많은 회원국들이 목표에 확신이 있고 호응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진행 중인 의제의 개발 지표에 더 집중하는 회원국들도 있다. 일부 소수의 목표는 이미

합의된 세부목표보다 덜 의욕적이고, 다른 몇몇은 정책변경 서약이 입증될 수 있는 분야를 더 잘 보장하는 목표도 있다.

137. 지금 필요한 것은 핵심 정치적 균형을 보존하는 동시에 각 목표가 세부적이고 측정 및 성취가 가능하며, 기존 UN 표준 및 협정과 일치하는 언어로 수립되었는지를 보장하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UN시스템의 기술 전문가들이 이행 수단을 포함한 세부목표를 재검토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국제 세부목표 및 노력, 기준, 합의의 수준에 의해 대표되는 의욕의 정도(level of ambition)를 비교 및 조정 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개발재원 논의에서 일관성에 기여할 것이다.

138. 이에 더해, 제안된 세부목표가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언급되었으나 양적 세부목표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회원국은 부수적인 구체적 글로벌 세부목표에 관련된 증거에 대해 학계 및 과학자 단체의 UN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하여 UN 시스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39. 적용 가능한 지표의 한 세트는 2016년에 그렇게 적절한 분석 수준에서 확실한 자료를 수집 및 비교, 분석될 수 있도록 규명될 것이다. 회원국은 이를 목적으로 기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하여 UN 시스템에 책임을 할당하여 지표의 초안을 만들게 할 수 있다.

## 5.2 길을 밝혀주기: 새 개발의제에서 데이터의 역할

140.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 기반의 과정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하는 각국의 실정 및 역량의 대응책으로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야 한다.

14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독립전문가 자문단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명시되었듯, 세상은 도구 및 방법론, 역량, 필요한 정보를 갖추어 새 의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해독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향상된 국내 및 국제 통계적 용량 향상과 엄격한 지표, 확실하고 시기적절한 데이터세트, 새롭고 비전통적인 데이터 자료,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은 의제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이다.

142. 이 모든 것에서 사생활 권리 보호 의무의 어떠한 절충 없이 공적 투명성과 정보 공유, 참여적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에 대한 노력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새 의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생산 및 수집, 분해, 분석, 공유 할 수 있는 역량이 절실한 국가 및 정부통계청

지원을 의미 있게 늘려야 한다.

143. 마지막으로 UN 통계위원회 (UN Statistical Commission)의 원조 하에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이 액션은 글로벌 협의 구축, 데이터에 적용가능한 원칙과 기준, 혁신과 분석을 증진시키기 위한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 망, 국가의 데이터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 자원 흐름,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글로벌 데이터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144. 특히, 우리는 각국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기존 데이터 및 정보 격차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현대적인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에 지속가능발전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을 권장하여 데이터 혁명이 지속가능발전 데이터를 위한 세계 포럼 (**World Fora on Sustainable Development Data**)과 같은 프로젝트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데이터에 대한 세계 포럼’ 개최 등의 이니셔티브를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 혁명을 만드는데 필요한 액션을 동원 및 협력하기 위함이다.

### 5.3 우리의 진행상태 가늠하기: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145. 새로운 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제는 모든 국민과 시민 사회 및 책임감 있는 기업,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사이에서 계약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헌법이 부과한 감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고 노동 기준, 환경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행동 및 옹호 활동을 통하여 역량을 갖춘 시민 사회는 대의명분에 따라 결집하고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146. 우리는 이제 진전을 위해 합의된 보편적 규범 및 세계적 서약, 공동 규칙 및 증거, 단체 행동, 진전에 대한 벤치마킹에 근거한 공동 책임 문화(a culture of shared responsibility)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책무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같은 단일 조건부가 아닌 정부 및 국제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모든 국가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다. 이 것은 사람 중심 · 환경 보호 발전의 진정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147. 이러한 모델은 국가적 주인의식 및 활발한 참여, 투명성 위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Post-2015 의제와 새로운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효율을 위해서는 능률화 되어야 하고 기존의 메커니즘 과정을 이용해야 한다. 증거 기반의 모델을 위해서는 데이터 혁명과 이것으로 발생하는 지표 및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보편성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모든 관계자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모델은 반드시 상호 검토 및 지역적 · 세계적 수준에서의 상호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48. 최근 몇 달 동안 개최된 UN 협의에서 모니터 진행에서 자발적이고 국가 주도적, 참여 지향적이며 증거 중심의, 다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49.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을 기반한 보편적인 검토 과정은 국가적 수준으로 시작된 뒤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토에 관한 토의는 전 단계에서 공공적, 참여 지향적,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한 사실 및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증거중심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요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i. 책무성을 위한 국가주도의 국가적 요소**

전반적인 검토 과정에서 개인에게 가장 근접한 이 국가적 요소는 가장 중요해야 한다. 이 요소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 시민 사회, 과학계 및 학계, 기업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기존의 국가 및 지역적 도구와 과정을 근거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 요소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국가정책프레임워크를 검토, 진전 기록, 교훈 습득, 해결방안 후속 조치 및 보고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하게 맞춰진 포맷에 기본한 유엔산하기구와 국제금융기구에서 발췌된 기존의 정보와 데이터를 엮은 자료집뿐 아니라 국가의 비정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가 보고서, 정부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진행에 대해 기록된 주요 조언으로 구성될 수 있다.

#### **ii. 동료평가 (peer review)를 위한 지역적 요소**

동료평가는 지역과 하위지역 필요성에 맞게 진행되었고 참여지향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의 기존 메커니즘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 목적은 국가 보고서를 숙고하고 지역 트렌드 및 장애물, 공통성, 모범사례, 교훈을 규명하며 상호 지원과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다. 지역적 검토는 유엔 지역경제위원회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이나 아프리카 동료평가 메카니즘 (Africa Peer Review Mechanism),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포럼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럽경제위원회 환경성과 평가

검토 (ECE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동료평가 과정 (OECD/DAC Peer Reviews)와 같은 메커니즘의 경험 및 성공에 기반해서 만들어 질 것이다.

### iii. 지식 공유를 위한 글로벌 요소

이 요소는 참여적이고 다자간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보편적 검토의 포럼으로 새로운 의제의 채택과 함께 출범한다. 본 포럼은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지원 하에 매년 개최될 것이다. 이 포럼은 진전에 대한 국가적 검토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각국이 의제 이행에서 얻은 교훈을 논의하는 주기적인 행사와 본 목표의 장 · 단기적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원국은 HLPF의 주재 하에 5년 주기로 다년간 평가 보고서의 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주제별 구성요소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에 대해 글로벌 진척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문제 및 장애물을 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동원하기 위한 요소이다. 주제별 검토는 HLPF의 주재 하에 수행되는데 적절한 조화와 검토 ‘플랫폼’에 달려있다. 주제별 검토는 회원국, 시민사회 파트너, 과학계, 학계,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UN과 다른 다자간 기구를 주관하는 기존의 유엔 전문기구나 기능 위원회, 이사회나 위원회, 관련 조약 이행 평가 기구 포함하고 각각의 주제 영역을 모니터하고 진전시킬 것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및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파트너십 또한 이러한 플랫폼과 연계될 수 있다. UN은 이러한 과정의 지원 및 보완, 지속적인 성과 측정을 위하여, Rio +20 회담의 결과로 작성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해마다 글로벌 주제별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다.

###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검토 요소

파트너십의 주요 요소와 이행에 필요한 동원 방법이 적극적인 검토 하에 지속되어야 한다. 제 3차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회의를 준비하면서 회원국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EDC)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 기존의 구조 및 과정이 어떻게 세계적 협력을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숙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분야의 검토 과정의 중요한 추가적 역할은 최빈국(LDCs), 내륙개도국(LLDCs),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특수한 조건과 필요에 집중하는 별개의 회의트랙을 설명하는

것이다.

150. 현재의 정부간기구의 구조는 앞에서 명시된 보편적인 검토 과정을 수용할 수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 아래 설립된 HLPF뿐만 아니라 유엔환경총회는 리우+20 회의에서 탄생한 주요한 조직적 혁신이다.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개혁은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5.4 변혁에 적합한 UN 만들기

151. 이러한 새롭고 보편적인,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세대를 이행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사회가 필요하다. 이 이행에 참가하는 모두는 새로운 변수 및 변혁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선도하고 구축하는 역할에 있어서 UN은 예외가 될 수 없다.

152. Post-2015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UN 시스템은 적절하고 혁신적인, 민첩한, 포괄적인, 협력적이고 결과 중심적 성향을 갖는다. 이는 보편적 인권 및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UN의 규범적 체계와 운영 활동을 통합시키며, 국가의 차별화된 필요에 대응한다. 필요 시 전문적 충고를 제시하며, 여러 부문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회원국에 더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 기술과 통합적인 접근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또한 외부 파트너 전문 지식 및 역량, 자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공통의 목표 및 비전, 헌신적인 리더십, 세계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지닌, 적응이 가능한 국제적인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가장 높은 수준의 책무성, 투명성,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153. 그렇게 하면서, UN 시스템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 전 조직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더 협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UN 국가팀 (UN Country Team)은 “하나의 유엔 (delivering as one)”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 이행을 촉진시켜 지속가능발전의 더 위대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Post-2015 발전 전략을 수행할 국내관계자에게 일관적 지원을 제공 할 것이다. 데이터 및 증거의 더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 또한 강조되고 불평등 및 위험요소,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적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다. UN 시스템은 능률과 더 나은 영향을 얻기 위해 더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모델의 개발과 현대 운영 관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154. Post-2015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유능하고 유동적이며 다양한 노동력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는 노력 또한 강화될 것이다. UN 산하기구 각각의 전문 지식 및 특수성은 복잡한 여러 분야의 어려움을 더 용이하게 다루기 위하여 원칙과 기능들을 초월한 작용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국제사회에서 급변하는 필요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숙련된, 성실한 국제 공무원 조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비교우위 이다. 이에 따라 위치 및 법규, 사업 모델을 초월하여 유능한 직원을 유치, 유지, 배치하는 데 투자할 것이다.

155. 또한 회원국은 UN이 더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히 UN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자원 관련 분야에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UN 재정 메커니즘이 개발 정책체계의 분할이 아닌 통합을 초래함에 따라 장기간 지원과 인력풀, 개발과 인도주의적 재원을 불러일으키는 지속된 개발자원조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156. 이런 맥락에서, 회원국은 새로운 변혁적 의제를 지원하고 전 국가에서의 개발의 조직화와 지속성을 달성하기 위해 UN 시스템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재 액션을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를 수립을 원할 수 있다.

## 6. 결론: 공동의 보편적 약속 (universal compact)

157. 오늘날 우리 세계는 온갖 정치적 격동 등의 혼란과 격변 등 수많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통 가치의 붕괴, 기후 변화와 불평등의 심화부터 이민에 대한 압박과 세계적인 유행병까지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대는 국가 및 국제기관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재고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거대한 어려움에 대한 성향과 범위는 우리 모두가 무관심과 여느 때와 다른 없는 행동은 버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가 인류를 배려하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분열과 면책, 불화를 초래하며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미래의 평화, 지속가능발전, 인권 보호가 위협에 빠진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세대는 사회를 변혁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158. 그러므로 2015년은 세계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 모두는 이번 한 해에 지속가능발전을 채택하고, 국민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며 마침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분명한 기회와 책임이 있다. 일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복잡한 의제에 직면한 적은 없었으며 이런 유일무이한 기회는 현 세대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59. 먼저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미래를 위하여 확고한 단계를 시행해야 한다. 변혁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만 한다. 우리는 오래된 사고방식 및 행동, 파괴적인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존엄성, 인류, 번영, 지구환경, 정의, 파트너십의 주요 요소를 통합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세계적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화합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의 국가적 이익의 반영을 통한 효과적인 국제적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60. 이러한 미래가 가능 하려면 우리 모두가 정치적 의지와 필수적인 재원을 총동원하여 국가 및 다자간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 및 협력을 결심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회원국이 국가적 ·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행동을 동원한다면, UN은 유엔 헌장의 원칙 및 목적에 부응하는 중추적인 보편적 기구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것이다.

161. 종합적으로, 우리의 과제는 진지하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이다. 지금 우리는 UN 창설 이후 개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존엄성의 신뢰와 인류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조직적 서약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삶의 존엄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범한 과정과 전례 없는 리더십으로 대담하고 힘차게,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회와 의무가 있다.